

2017년 하반기 · 2018년 9급 시험대비 국어 모의고사
이유진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보조 동사의 예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말.
-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말.
- ㉢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 ㉣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말.

- ① ㉠ - 형이 우리가 살 집을 지어 주었다.
- ② ㉡ - 남아 있던 빵을 먹어 버렸다.
- ③ ㉢ - 그는 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해 보았다.
- ④ ㉣ - 아이가 아빠에게 장난감을 사 달라고 졸라 댔다.

2. 사전의 정보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늦다
 [I] ㉠
 【…에】정해진 때보다 지나다.
 ¶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II] 「형용사」
 「1」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
 ¶ 시계가 오 분 늦게 간다. / ㉡
 「2」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 / 시기가 한창인 때를 지나 있다.
 ¶ 늦은 점심 / 우리 일행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
 「3」곡조, 동작 따위의 속도가 느리다.
 ¶ 박자가 늦다 / ㉢

이르다「형용사」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 그는 여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동사’이다.
- ② ㉡에는 ‘올해는 꽃이 늦게 핀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는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서류 작성이 늦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 들어갈 말은 ‘늦다[II]「1」’이다.

3. ㉠의 '거울'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노소를 떠나서 다이어트 열풍이 거세다. 몸이 우리의 다양한 욕구나 자기 표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 내는 하나의 ㉠ 거울이 된다.

- ① 그는 모든 사람의 거울이 된다.
- ②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 ③ 거울 속에 비친 풍경은 고즈넉했다.
- ④ 그는 자신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더욱 분발했다.

4. 사람에 대한 표현과 의미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결곡하다: 생김새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빈틈이 없다.
- ② 늑늑하다: 성격이 너그럽고 활달하다.
- ③ 야살스럽다: 보기에 알맹이 없고 되바라진 데가 있다.
- ④ 사박스럽다: 남들에게 상냥하고 부드럽다.

5.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 ① 그것은 √어찌면 √바람 √탓인지도 √모른다.
- ②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20년이 √넘었다.
- ③ 산 √위에 √올라와 √오늘로 √사흘째가 √된다.
- ④ 저는 √더이상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6. (가), (나)의 공통점을 바르게 말한 것은?

(가)

부역으로 침입(侵入)한 바다
도마 위에 바다가 출렁거린다
햇살에 도전하는 갑옷을 벗기고 탁탁
토막을 치기까지엔
진정 얼마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바다는 이미 눈을 감고 있다
바다로 내려가는 계단(階段)에서
칼날을 물고 늘어지는
하얀 파도(波濤)

- 생선 요리 -

(나)

피아노에 얹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 집어 들었다.

- 피아노 -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대상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시키고 있다.
- ④ 개인의 일상적 체험에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7. 빈칸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모든 일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야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자 자신의 사정()을 상대방에게 미리 충분히 전달하고, 서로 수용()하는 자세 속에서만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課程 - 驅逐 - 事情 - 收用 - 團合
- ② 過政 - 構築 - 寫情 - 受用 - 談合
- ③ 過程 - 驅逐 - 查定 - 收容 - 團合
- ④ 過程 - 構築 - 事情 - 受容 - 團合

8. 다음 글의 작가가 쓴 작품이 아닌 것은?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밤·감·배며 석류·굴·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 ① 양반전 ② 열하일기
- ③ 호질 ④ 구운몽

9. ㉠~㉣을 고치려는 이유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눔 도서관은 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성격이 ㉠ 강화되어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책을 ㉡ 기여받기도 합니다.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자신에게 ㉢ 요청되는 물건을 구입해 보세요. ㉣ 이처럼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나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봐요.

- ①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쳐야 합니다.
- ②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기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 ③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 ④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

1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근대 낭만주의 이전의 고전주의에서는 예술 작품의 정신 및 방법을 모방하는 '패러디'가 중요한 창작 기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세기 모더니즘 예술관에서는 원본 텍스트를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비판적 거리를 두고 모방하는 패러디에 대해서만 그 예술성을 인정하였다. 비판적 거리는 모방자가 원본 텍스트를 풍자적, 희극적으로 변형시키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비판적 거리를 두고 모방한 텍스트는 원본이 지닌 가치관이나 이념을 전복시키는 기능을 지닌다.

반면, 원본 텍스트들을 짜깁기해 모방한 방식인 '패스티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패스티시는 모방하는 행위의 유희성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본 텍스트를 변형시키려는 의도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패스티시는 사회의 기성 질서 등에 비판정신이 없는 탈정치적인 것으로 종종 폄하된다. 그러나 모방 행위 그 자체의 즐거움에만 초점을 둔 패스티시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와 대응된다. 결국, 패스티시는 유희적 모방을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만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역설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이러한 유희적 모방행위는 가치관 등이 경직된 사회의 엄숙함을 조롱하고 야유함으로써, 사회 비판의 우회적 통로가 된다.

- ① 패러디는 낭만주의가 출현한 이후에는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폄하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 ② 현대예술에서 패러디는 실용성만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데 그 목적이 한정된다.
- ③ 경직된 사회에서는 모방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예술의 사회 비판 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
- ④ 원본 텍스트와의 비판적 거리를 중시하는 패스티시 기법은 모더니즘 미학의 정치성을 이어받은 것이다.

11. 발음에 대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나 '배'를 발음할 때는 '게'나 '베'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
- ② '손잡이'를 [손재비]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후설모음을 전설모음으로 발음한 것이다.
- ③ '아프다'를 [아푸다]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평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발음한 것이다.
- ④ '졸졸'보다 '줄줄'이 느낌이 큰 것은 'ㄴ'와 'ㄷ'가 발음되는 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12. 밑줄 친 접사의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한시름 ② 한가운데
- ③ 한복판 ④ 한잠

13. ㉠에 해당하는 문장은?

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 안긴문장의 주어가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른데도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 ① 내 취미는 음악과 영화를 보는 것이다.
- ② 그 공간은 그가 유년의 추억을 간직한 공간이다.

- ③ 그는 준비를 완벽히 해 주신 데에 감동받았다.
- ④ 그가 제시한 방법이 채택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14. (가)와 (나)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은?

(가) 어떤 관상쟁이가 있었는데, 관상서를 읽지 않고, 재래의 관상법을 본뜨지 않았으며, 이상한 법으로 관상을 보므로,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관상쟁이’라 불렀다. 고관·신사·남녀·노유(老幼)들이 다투어 찾아가고 제각기 모셔 가 모조리 관상을 보았다.

(나) 그는 부귀하고 뚱뚱한 사람의 상을 보고는 ‘당신의 얼굴이 매우 여위었으니, 가족이 천하기를 당신만 한 이가 없겠습니다.’ 하였고, 빈천하고 여윈 사람의 상을 보고는, ‘당신의 얼굴이 살이 쪼였으니, 가족이 귀하기론 당신만 한 이가 드물겠습니다.’ 하였다. 또 장님을 보고는, ‘눈이 밝습니다.’ 하였고, 걸음이 빠르고 잘 뛰는 사람을 보고는, ‘절어서 못 걸겠습니다.’ 하였으며, 얼굴이 예쁜 부인을 보고는, ‘혹 아름답고 혹 추합니다.’ 하고, 세속의 이른바 너그럽고 어질다는 사람을 보고는, ‘만 사람을 상할 분이십니다.’ 하였다.

- ① (나)는 (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의 궁극적인 결론이다.
- ③ (나)는 (가)를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가 타당하기 위한 전제이다.

15.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ㄱ.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역경을 이겨 낼 잠재적인 힘인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한다.

ㄴ. 그 예로 학습 능력이 같아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학 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심리학자는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ㄷ. 긍정의 마음을 갖고 이를 습관화하면 누구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ㄹ. 따라서 역경을 이겨 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 즉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ㅁ. 심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 ① ㄷ-ㄱ-ㄴ-ㄹ-ㅁ
- ② ㄷ-ㄴ-ㄴ-ㄱ-ㄹ

- ③ □-ㄱ-ㄷ-ㄹ-ㄴ
- ④ □-ㄱ-ㄹ-ㄷ-ㄴ

16. 다음 글에서 ㉠이 의미하는 것은?

과학이 인간의 삶 그 자체로부터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것이라면, 과학과 철학을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물질적인 대상 세계와 관련된 부분은 과학이 맞고, 인간 정신의 내면이나 가치의 세계와 관련된 부분은 철학이 맞는다는 식의 낱아 빠진 이분법은 과거의 사변적 형이상학이 자신의 잘못된 존재 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낱은 형이상학이 거쳐 왔던 ㉠ 도피 행로를 추적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과학과 무관하게 또는 과학과 대립하면서 어떤 심오한 통찰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삶을 해명하고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 ① 인간의 내면과 가치의 세계에만 안주해 왔던 이력
- ② 실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문제 해결
- ③ 물질세계의 원리를 해명하려는 탐구 과정
- ④ 세계와 인간의 삶에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려는 노력

17. ㉠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철학이란 개별 과학처럼 물질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가치나 ㉠ 인간의 실존적 고뇌, 초월적인 세계 등을 다루는 것이다.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영변에 약산(藥山) /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②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 ③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 갑니다.
- ④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18. 다음 글을 현대어로 바꿀 때 일어나지 않는 음운 현상은?

늘근 겨지븐 죠히를 그려 장긱파닐 밍굴어늘,
저른 아드큰 바닐를 두드려 고기 낫길 낙술 밍꺽는다.

- ① 움라우트 ② 단모음화
- ③ 원순모음화 ④ 오분석

19. 밑줄 친 부분의 문맥상 의미에 가장 가까운 성어는?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 놀

- ① 康衢煙月 ② 淸風明月
 ③ 行雲流水 ④ 東家食西家宿

20.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신발을 사러 가려고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그는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에까지 갈 필요가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衣裳)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입니다.

- ① 일체의 이론은 회색이지만 생(生)의 황금의 나무는 푸른빛이다.
 ② 이론이란 결국 진리의 거죽에다 속을 넣고 세워 놓은 박제에 불과하다.
 ③ 이론은 생각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며, 말하자면 실천의 진수(真髓)이다.
 ④ 의지의 힘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지식은, 뿔 수 없어 소용없는 칼집에 들어 있는 이도(利刀)와 같은 것이다.

[정답 및 해설]

1. ④

‘대다’는 행동의 반복 혹은 그 행동이 심함을 나타내므로 ㉠

- ① ‘주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
 ② ‘버리다’는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 동사라서 ㉢
 ③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므로 ㉣

2. ②

‘올해는 꽃이 늦게 핀다.’는 알맞은 시기를 지나 핀 것이므로 [II]형용사「2」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필수 부사어로 정해진 때를 쓰며, 현재형으로 ‘늦는다’를 사용하였으니 ㉠에 들어갈 말은 ‘동사’이다.
 ③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서류 작성이 늦다.’는 ‘서류 작성’이라는 동작의 속도가 느리다는 의미이다.

④ '어느 때', '포기하기엔'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므로,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진다는 의미의 '늦다[Ⅱ]「1」'이 반의어이다.

3. ②

'거울'은 '어떤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에서는 얼굴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하다.

① 행동에 모범이 될 만한 귀감 ③ 사물을 비추어 주는 기구 ④ 교훈

4. ④

사박스럽다: 성질이 보기에 독살스럽고 야멸친 데가 있다.

5. ④

→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사 '더'와 명사 '이상'이 이어져 의미를 이루는 구조

아무것: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일체, 또는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명사

① 그것: 지시 대명사

탓인지도: 명사 '탓'에 서술격 조사 '이다'에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는지'

② 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20년: 본래 띄어 쓰는 것이 원칙, 아라비아 숫자 뒤에서는 붙여 쓰기 허용

③ 올라오다: 합성어

사흘째: '-째'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6. ②

관념이나 연상되는 대상을 감각적(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7. ④

過程 - 構築 - 事情 - 受容 - 團合

過程: 일의 진행·발전하는 경로

構築: 체제·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

事情: 일의 형편이나 까닭

受容: 받아들임

團合: 한데 뭉침 = 단결

8. ④

'구운몽'은 김만중의 작품이다. 제시된 지문의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의 작품이다.

9. ④

㉠ 다음의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에서는 이

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 내용의 문단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앞에 쓰일 접속 표현으로 ‘그러나’는 적절하지 않다.

① ㉠ ‘강화되어진’에는 피동 표현 ‘-되-’, ‘-어지-’가 이중으로 쓰였으므로, ‘강화되어진’을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자리에는 시민들로부터 책을 무료로 받는다든 의미의 단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기여(寄與,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보다는 ‘기증(寄贈)’이나 ‘기부(寄附)’가 적절하다.

③ ‘요청(要請)’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또는 그런 청(請)’이며, ‘청(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에게 부탁을 함. 또는 그 부탁.’이다. ㉢의 문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이며 남에게 하는 부탁의 상황이 아니므로, ㉢을 ‘필요(必要,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유희적 모방행위인 패스티시가 경직된 사회를 야유하거나 조롱하는 사회 비판의 우회적 방식을 취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① 20세기의 모더니즘 사조 하에서 폄하된 패러디는 모든 패러디가 아닌, 비판적 거리를 두지 않고 모방한 패러디이다. 따라서 낭만주의 이후 늘 폄하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지문의 2번째 단락에 가치관도 비판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패러디의 목적이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에 한정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패스티시에서는 원본 텍스트와의 비판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 또, ‘패스티시’는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탈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패스티시 기법이 모더니즘의 정치성을 이어받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1. ㉣

‘졸졸’보다 ‘줄줄’이 느낌이 큰 것은 ‘㉠’이 양성모음이고 ‘㉡’이 음성모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 ‘㉡’는 모두 후설모음으로 발음되는 혀의 위치가 같다.

① ‘개’나 ‘배’의 ‘㉠’은 입을 크게 벌리는 저모음이고 ‘계’나 ‘베’의 ‘㉡’는 그보다 입을 적게 벌리는 중모음이기 때문이다.

② ‘손잡이’의 ‘㉠’을 ‘㉡’로 바꾸어서 [손재비]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후설모음인 ‘㉠’을 전설모음으로 ‘㉡’로 발음한 것이다.

③ ‘아프다’의 ‘㉠’을 ‘㉡’로 바꾸어서 [아푸다]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평순모음인 ‘㉠’을 원순모음 ‘㉡’로 발음한 것이다.

12. ㉠

* 접사 ‘한-’의 의미

1.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걱정 / 한길 / 한시름

2.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가운데 / 한겨울 / 한낮 / 한밤중 / 한복판 / 한잠

13. ㉢

‘준비를 완벽히 해 주신’의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다른데도 생략되어

있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는 선생님이 준비를 완벽히 해 주신 데에 감동받았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④는 ‘결코 ~ 아니었다.’로 바꾸어야 하지만 발문에서 원한 답이 아니다.

14. ③

(가)는 이상한 관상쟁이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고 (나)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이상한 관상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15. ④

ㄱ: 역경, 회복 탄력성

표지 - 그리고

ㄴ: 믿음, 생각의 차이, 결과의 차이

표지 - 그 예로

따라서 ㄴ의 앞에는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문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ㄷ: 긍정의 마음, 습관화, 회복 탄력성

ㄹ: 역경, 회복 탄력성, 긍정의 마음

표지 - 따라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과 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ㄱ의 뒤에 제시되어야 한다.

→ ①, ③ 탈락

ㅁ: 회복 탄력성

ㅁ은 회복 탄력성의 정의이므로 제일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부연 설명해주는 ㄱ이 뒤따라 나오는 ㅁ-ㄱ의 순서로 이어져야 한다.

16. ①

문맥을 정리해 볼 때, 여기서 ‘도피 행로’란 ‘과학의 공격’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과학의 공격이란 철학의 존재 근거에 관한 것임을 그 앞 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도피 행로’란 철학의 존재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17. ②

생명파인 유치환의 ‘일월’이지만 삶에서 느끼는 회의와 절망감이 실존주의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①은 임과 이별하는 슬픔, ③은 자비와 인(仁)을 바탕으로 한 참된 사랑, ④는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자연을 노래한 작품이다.

18. ③

* 현대어 풀이 *

| |
|--|
| 늙은 계집은 종이를 그려 장기관을 만들거늘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든다. |
|--|

원순 모음화는 순음 ‘ㅁ, ㅂ, ㅍ’의 영향을 받아서 평순 모음인 ‘ㅡ’가 원순 모음인 ‘ㅜ’로 바

끼는 현상을 일컫는데, 제시된 옛글을 현대어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음운 현상은 다음과 같다.

① 음라우트(‘ㅣ’ 모음 역행 동화): 거집>계집

② 단모음화: 장기판>장기관, 저문>젊은

④ 오분석: 낙술>낙시를 (‘낙시’는 원래 ‘낙’이었다. ‘낙시’는 ‘낙’에 조사 ‘ㅣ’가 결합된 말인데, 이것이 하나의 명사로 잘못 굳어서 쓰인다.)

19. ③

행운유수(行雲流水):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 자연스럽게 거리낌이 없음.

① 강구연월(康衢煙月): 번화한 거리에 달빛이 은은함.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풍경.

② 청풍명월(淸風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 자연의 아름다움.

④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 떠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지냄.

20. ③

글의 처음에 제시된 일화는 현실 경험과 유리된 허황된 이론과 지식의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반면, ③은 이론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